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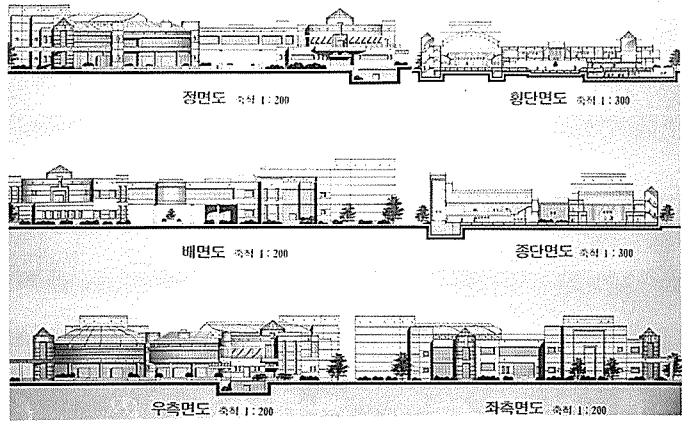


모형도

서부산문화회관

West Pusan Cultural Center

부산시에서는 서부산권 주민들의 문화, 예술, 집회, 오락, 운동 등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문화 공간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만남과 각종 행사의 광장을 마련하고, 신도시 공단 주변 여건을 고려한 공익시설의 확보와 향후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작년 12월 28일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현상설계경기는 5개 사무소에서 작품을 제출한 결과 부산 신도시 설계 감리(주) 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고, 우수작으로는 금림, 영일종합건축안이, 가작으로는 성우건축안이 각각 선정됐다. 본지에서는 당선작과 우수작을 게재한다.



당선작

종합건축 신도시설계 감리 (주)
(박찬실+양덕복)

대지위치 / 부산직할시 사하구
단동 1207-1번지

대지면적 / 33,000 m²

건축면적 / 3,870.54 m²

연면적 / 7,521.54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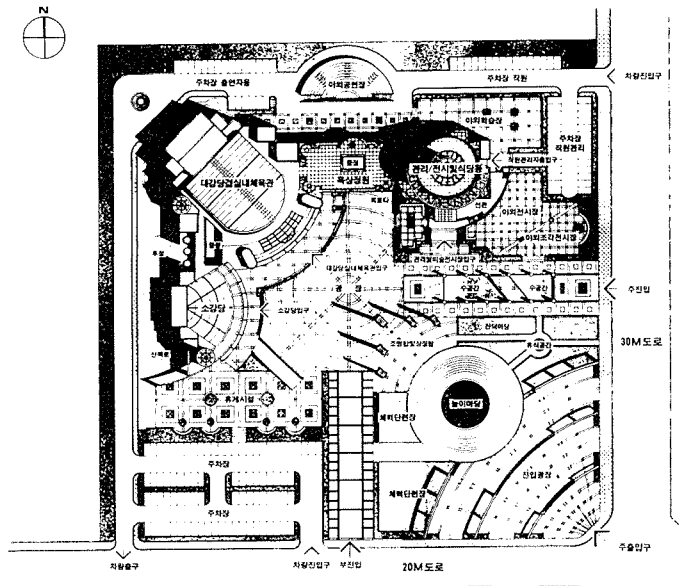
건폐율 / 11.73%

용적률 / 22.76%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주용도 / 관람전회시설, 운동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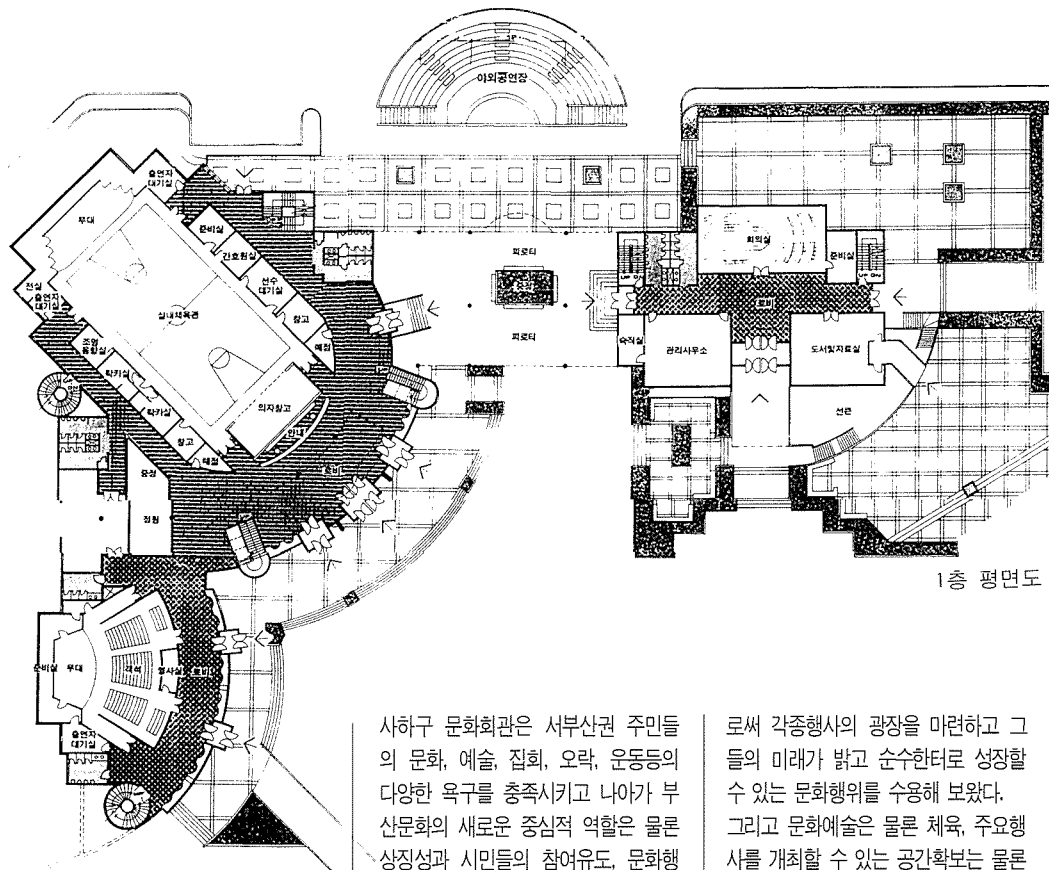
건축 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배치도



조감도



1층 평면도

사하구 문화회관은 서부산권 주민들의 문화, 예술, 집회, 오락, 운동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부산문화의 새로운 중심적 역할은 물론 상징성과 시민들의 참여유도, 문화행위의 자연스러움을 우선 고려 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만남의 장소

로써 각종행사의 광장을 마련하고 그들의 미래가 밝고 순수한터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행위를 수용해 보았다. 그리고 문화예술은 물론 체육, 주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확보는 물론 소강당의 독립적 배치로 지역주민의 발표, 연극, 공연, 예식의 편리성과 예

술성을 종합적으로 구성 하였다
 조형개념은 지역 주변 이미지를 닮은 철새가 날아 시뻘히 내려앉은 자연적인 형태에서 인간적인 내 외부 공간 계획을 실현해 보았으며 취미, 교육, 전시, 주민활동의 영역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동선체계와 선큰, 식당, 야외학습장, 야외전시의 외부공간과 연계되어 더욱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장래에도 싫증나지 않는 지역의 대표적 건물로써 도시의 축에 순응하고 경직된 대칭구조를 탈피, 건물특성에 맞추어 균형과 조화에 의한 방법을 검토, 동서남북의 이미지가 연결되는 조형요소를 담아 서부산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건축미를 표현하였다.
 외부시설은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진입의 개방과 놀이마당, 상징물, 상징탑, 광장으로 이어지는 축을 설정, 항상 즐거움과 축제마당이 되어 이 지역의 행복과 즐거움이 항상 충만되는 공간을 연출해 보았다.